

문제 1

제시문 <가>의 [그림2]를 통해 직업 C의 로렌츠 곡선을 유추하여 세 직업 A, B, C의 소득에 대해 불평등도가 높은 직업부터 순서대로 나열하고, 아래 <사례>의 직업이 A, B, C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답하시오. 그리고 아래의 사례에 대한 제시문 <나>와 <다>의 입장을 각각 설명하시오. (900 ± 100자)

<사례>

배우의 출연료는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특급스타는 회당 출연료가 억대에 달하지만 조·단역의 경우는 몇십만 원에 불과하다. 한 번 등급이 정해지면 조정은 쉽지 않다. 특히 출연료 상승을 바라는 것은 어렵다. 10년 넘게 한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배우는 돈을 더 달라고 하면 교체될까봐 입을 다문다고 했다. 배우 10명 중 9명의 월평균 소득은 52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상위1%의 특급스타들은 배우 전체 소득의 55% 이상을 가져간다.

문제 2

제시문 <라>의 두 지문에 공통으로 나타난 관점을 서술하고 그 관점을 기준으로 제시문 <나>와 <다>의 입장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각각 논술하시오. (900 ± 100자)

02

출제개요

가. 출제 의도

인문사회계열 논술고사는 <국어 I>, <국어 II>, <고전>, <문학>, <사회·문화>, <법과 정치>,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경제> 등의 여러 관련 교과서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사회적 분배와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출제 의도는 고등학교 교과서와 관련된 인문과 사회의 여러 저술에서 발췌·편집하여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독해력, 비판적 사고력, 논증구성력 그리고 창의력을 평가하고자 함이다. 무엇보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기초 학업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표에 관한 해석능력과 세 가지 상반되는 제시문의 분석능력에 중점을 두어,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비판하여 논증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정규 수업의 교과 과정을 충실히 수행한 학생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제시문을 이해하고 문제에 답할 수 있도록 만들고, 문항은 대학의 교과 과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등장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을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에 나타난 정의의 두 가지 입장인 '응분의 몫'과 '공정으로서의 정의'로 재구성한 것으로, 두 상반되는 입장을 공리주의의 사회적 효용성 관점에서 각각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나. 제시문 요약

- 제시문 <가>: 로렌츠 곡선과 5분위 소득 분류법을 통해 불평등 상황을 제시한다.
- 제시문 <나>: 오디세우스와 아이아스의 공적 논쟁을 통해 각자의 '제 몫'의 관점에서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페인버그의 '응분의 몫'모형을 소개하여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기능론적 시각을 제시한다.
- 제시문 <다>: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과 관련하여 롤스의 정의론을 소개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평등한 자유의 원리'에 기초하며 '차등 원리'로 최소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한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옹인하는 모델로 제시한다.
- 제시문 <라>: '죄와 벌'의 주인공인 라스콜니코프의 독백과 사회생물학적 시각에서 서술한 개미 이야기를 통해, 전체 이익의 극대화 및 최대 다수의 최대 선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효용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한다.

다. 문항 해설

- 문항 1은 '소득 불평등'이라는 핵심개념과 관련하여 두 가지 능력을 평가한다.
첫째, 고등학교 <경제>에 제시된 도표(제시문 가)를 통해 소득 불평등의 여러 양상을 해석한다.
둘째, 고등학교 <사회·문화>에 제시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중시하는 '기능론'의 입장과 사회 불평등이 발생하는 사회 구조적 조건에 주목하는 '갈등론'의 입장을 각각 분석하고 이를 '소득 불평등'문제에 적용한다.
- 문항 2는 제시문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두 가지 능력을 평가한다.
첫째, 고등학교 <고전>과 사회생물학 저서에서 발췌·재구성한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공리주의의 사회적 효용성 관점을 파악한다.
둘째, 공리주의적 관점을 근거로 제시문 <나>에 나타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과 제시문 <다>에 나타난 갈등론적 관점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03 평가기준

- 답안이 1) 제시문과 문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되었는지, 2) 그 구성이 논리적인지, 3) 언어사용과 표현은 적절한지 평가한다.
- 답안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문제 1

그래프를 파악하는 능력과 제시문 <나>와 <다>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① 그래프 파악

- 제시문 <가>에 제시된 [그림1]의 로렌츠 곡선에 드러난 소득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림2]의 5분위 소득 분포를 [그림1]의 로렌츠 곡선으로 변환하여, A, B, C 세 직업 간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 정확한 도표 분석을 바탕으로 직업 B, C, A의 순으로 소득이 불평등한 순서를 답하고, 문제의 사례가 직업 B임을 제시한다.

② 제시문 <나>의 파악 및 요약

- 제시문 <나>의 내용을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응분의 몫)으로 파악하고 이를 명확하게 요약한다.
- 응분의 몫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사회적 불평등의 관점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중시하는 (기능론적) 관점과 연결한다.
-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정당화하는 관점에서, 슈퍼스타와 무명 배우 사이의 능력과 인기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응분의 몫으로서 당연함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③ 제시문 <다>의 파악 및 요약

- 제시문 <다>의 내용을 사회 불평등과 관련한 사회 구조적 조건에 주목하는 (갈등론적) 관점과 연결시켜, '공정으로서의 정의'로 파악하고 이를 명확하게 요약한다.
-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평등한 자유의 원리'에 기초하고 '차등원리'로 최소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한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용인하는 모델임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관점에서, 슈퍼스타와 무명 배우 사이의 불평등한 분배는 '차등원리'에 따라 최하위 계층의 무명 배우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만 용인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문제 2

제시문 <라>에 드러난 공리주의의 사회적 효용 개념을 파악하여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중시하는 (기능론적) 관점과 제시문 <다>의 사회 불평등과 관련한 구조적 조건에 주목하는 (갈등론적) 관점을 제대로 비판하는지 평가한다.

① 제시문 <라>의 관점 파악

-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사회적 불평등과 개인의 희생은 용인될 수 있다는 공리주의의 특징을 제시문 <라>의 개념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명확하게 요약한다.
- ①의 “한 사람의 생명 덕분에 수천 명의 삶이 파멸과 분열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의 서술부분과 ②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다른 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사회를 구성하고 협동”의 서술 부분을 공리주의적 관점의 전거로 활용한다.

② 제시문 <나>의 한계 비판

- 제시문 <나>의 기능론적 관점의 한계를 공리주의 관점과 명확하게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 전체 이익의 극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제시할 수 있으나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에 따라 사회의 재화가 분배될 때, 개인 간의 지나친 경쟁을 초래하여 사회적 효용 극대화가 저해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제시할 수 있으나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보상은 분배의 불평등을 파생할 수 있으며, 노력과 능력에 비해 과한 보상을 받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양극화가 발생하여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심화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사회적 협동과 통합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제시할 수 있으나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응분의 몫과 차등적 보상으로 인한 갈등과 불만의 심화는 공공의 이익이나 효용의 극대화를 저해하며 나아가 사회적 협동과 통합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③ 제시문 <다>의 한계 비판

- 제시문 <다>의 갈등론적 관점의 한계를 공리주의 관점과 명확하게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 사회적 협동 및 통합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개진할 수 있으나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모두 전체의 선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협동 및 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과 기여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제시할 수 있으나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정한 분배를 통해 사회 정의를 추구할 때 능력을 가진 자는 의무가 저하될 수 있고 취약 계층은 사회적 보조에 의존하게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전체 이익의 극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제시할 수 있으나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문제 해결이 지연되거나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며 이는 사회적 효용 극대화를 저해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04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의 로렌츠 곡선과 5분위 소득분포는 직업군 간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세 직업 A, B, C의 소득에 대해 불평등도가 높은 직업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B, C, A의 순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상위 20%의 소득이 B의 경우 전체소득의 약 85%, C의 경우 약 50%, A의 경우 약 30% 정도를 차지하며, 특히 A의 경우 누적인원의 증가에 따른 누적 소득의 증가가 거의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사례>의 직업군은 하위 90%가 생계유지도 어려운 낮은 소득에 불과한 반면에 상위1%가 전체 소득의 과반 이상을 가져가는 극단적인 소득불평등의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사례>는 위의 세 직업군 중 소득의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B에 해당한다.

제시문 <나>와 <다>의 입장은 각기 다른 근거에서 <사례>에 나타난 소득의 불평등을 합리화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오디세우스와 아이아스의 공적 논쟁을 통해 각자에게 ‘제 몫’이 주어지는 관점에서 정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응분의 몫’의 모형으로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주체의 능력에 따른 응분의 몫으로 차등적 보상을 중시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슈퍼스타와 무명 배우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상이한 능력과 인기에 따라 주어지는 응분의 몫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제시문 <다>는 개인적 주체가 아닌 사회 구조적 조건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파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라 '평등한 자유의 원리'에 기초하고 '차등원리'로 최소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한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용인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관점에서, 슈퍼스타와 무명 배우 사이의 불평등한 분배는 '차등원리'에 따라 최하위 계층의 무명 배우들에게 일정한 혜택과 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만 용인될 수 있다.

문제 2

제시문 <라>는 “한 사람의 생명 덕분에 수천 명의 삶이 파멸과 분열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라고 말하는 라스콜니코프의 독백을 통해 다수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한 노파를 죽이고 돈을 빼앗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다른 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사회를 구성하고 협동”하는 개미의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희생으로 사회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을 칭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시문 <라>는 공리주의의 전체 이익의 극대화 및 최대다수의 최대 선을 추구하는 효용성의 관점과 연결된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한계점을 지적하면, '응분의 몫'의 모델은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에 따라 사회의 재화가 분배될 때, 개인 간의 지나친 경쟁을 초래하여 사회적 효용 극대화가 저해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보상은 분배의 불평등을 파생할 수 있으며, 노력과 능력에 비해 과한 보상을 받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양극화가 발생하여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심화될 수 있다. 나아가 응분의 몫과 차등적 보상으로 인한 갈등과 불만의 심화는 공공의 이익이나 효용의 극대화를 저해하며 나아가 사회적 협동과 통합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한계점을 지적하면, 공정한 정의의 모델은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한에서만 분배상의 불평등을 허용하는 공정한 분배를 추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노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능력을 가진 자는 자신이 노력하고 일한만큼의 몫을 자유롭게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노동과 생산의 의욕이 저하될 수 있고 취약 계층은 스스로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익이 보장되기에 사회적 보조에 의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모두 전체의 선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통합 또한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